



소록도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K목사 앞에 일흔이 넘어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요청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열명의 자녀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년전, 그중의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11살 때

였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는 무작정 나섰습니다. 오는 도중 어느 산 속 그늘 밑에서 문득 잠에 골아 떨어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바위를 들어 아이를 향해 힘껏 던졌지만 그만 바윗돌이 빗나가고 말았지요.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 자는 아이를 깨워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소록도에 다 왔을 때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되면서 아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니?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한발 두발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만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소록도에 아이를 버리다 시피 한 후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름명의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 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큰 아이가 입을 엽니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요. 그날로 말없이 짐을 꾸렸죠".

둘째, 셋째, 넷째... 사정은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문득 40년전, 열한 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에 내다버린 그아가가 생각나는 겁니다.

'내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을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아홉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아이....'

다시 또 먼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들은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채 울면서 나를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이제 여기서 같이 살아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자식을 버린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느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이후로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때서야 나는 깨달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아홉 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려면 나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졌노라고 난 다짐했습니다.

나는 그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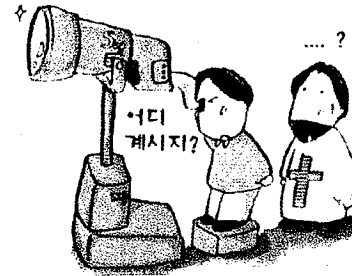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 낮은 울타리 91년 9월 -

교회목표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4권 20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5월19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2)



생각보다 가까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송인도 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자주 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분의 작곡인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생키가 그 찬송 부르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날 밤이 만월이었는데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지요.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그 찬송을 자주 부르셨거든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알게되자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생키는 너무 감격하여 자기의 옛 적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멀어야 진리같고 찾기 어려워야 진리인 양 착각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못보고 있을 뿐 언제나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यो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니 그가 나를 도왔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28:7)'

엄마가 딸에게
어디든 빈손으로 다니지 말아라
친구를 기다리며 시계를 쳐다볼 때
그때야 말로 최고의 독서 시간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고스톱에 손을 대지도 말아라
그것은 결코 가거나 서는 것이 아니라
다같이 무너지는 길일 뿐이다

주 일 예 배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14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2(시 32)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주만 바라볼찌라"	다 같이
기도 Prayer		김경숙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7:36-50(신 102)	인도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hoir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깨뜨린 향유 옥합"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05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5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식당봉사
5일	최재학	박병민	박병민.박일영	박일영.이광희	박정자
12일	권용일	박상욱	사카시다.양경배	사카시다.최기향	임혜자
19일	김경숙	박일영	유광진.윤형권	양경배.김동숙	지찬영
26일	김교섭	박정자	이광희.이재영	최재학.김경숙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담살똥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예배> 저녁 7:30 <아동, 학생> 주일 낮 12시 <청년부> 토 오후 6시

◀교회소식▶

- 교우소식
 - *한국방문: 김반석 집사. 사업차 지난 17일(금)출국
장현중 장로.윤주야 집사 사업차 지난 15일(수)출국
 - *미국으로 유학: 한 건 집사. 23일 출국(목).
미국에서 이루어야 할 학문과 계획, 또한 다시만날 수 있는 날도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 *이규임 집사. 신경화 집사: "살롬"여성중창단 Concert
24일(금요일) 저녁 7:30. Aotea Methodist Church(370 Queen St)
- '약속의 아비'기도회: 이번주 화요일(22일) 저녁 7:30. 교회
*가족의 짐을 진 아버지들의 기도는 가정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 오늘 맞은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양경배, 김동숙 집사 (19일)



"내 비록 고단했어도
그대 늘 따뜻하여
사는 일이 아름답고 눈물겹구려..." 오~~~래 행복하세요

스물 아홉.. 열네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른 일곱.. 자식이 국민학교를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
들어 가장 잘 보이는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
는 누렇게 빛바랜 액자가 걸려있습니다.

마흔 셋... 공휴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속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흔 여덟.. 자식이 대학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쉰셋..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내의를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
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내의를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예순하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
다보며 함박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은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